이야기 8: 욥

주제말씀
[욥기 1: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옛날 동쪽 나라에 욥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양과 낙타, 소가 수천 마리나 되었고, 그 외에도 아주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어요. 욥은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욥은 나를 참 잘 섬긴단다."
사탄이 대답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욥이 괜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없애 버리시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욕할 거에요."
"그래? 그렇다면 욥과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네 손에 주노라 하지만 절대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사탄은 욥을 괴롭힐 생각에 신이 났어요. 어느 날, 하인이 욥에게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주인님, 나쁜 사람들이 몰려 와서 하인들을 다 죽이고 그 많은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때, 다른 하인이 나타나더니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잠시 후, 또 하인이 욥에게 달려와서 말하길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 모두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욥은 가졌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고 말았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욥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 제사를 드렸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탄은 실망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생각했어요. 사탄은 욥에게 아주 무서운 병을 주었어요.
욥은 온몸에서 고름이 나고 몹시 가려웠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벌을 받아 죽는게 낫겠어요. 이렇게 괴롭게 하시다니"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 왔어요. 친구들은 욥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무랐어요. 욥은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욥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에게 찾아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어려움이 끝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욥의 병을 고쳐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열 자녀도 주셨어요. 그 후로도 욥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욥기 1:1)**

하나님을 경외하며

활동 1. 욥이 잃어버린 것의 숫자를 따라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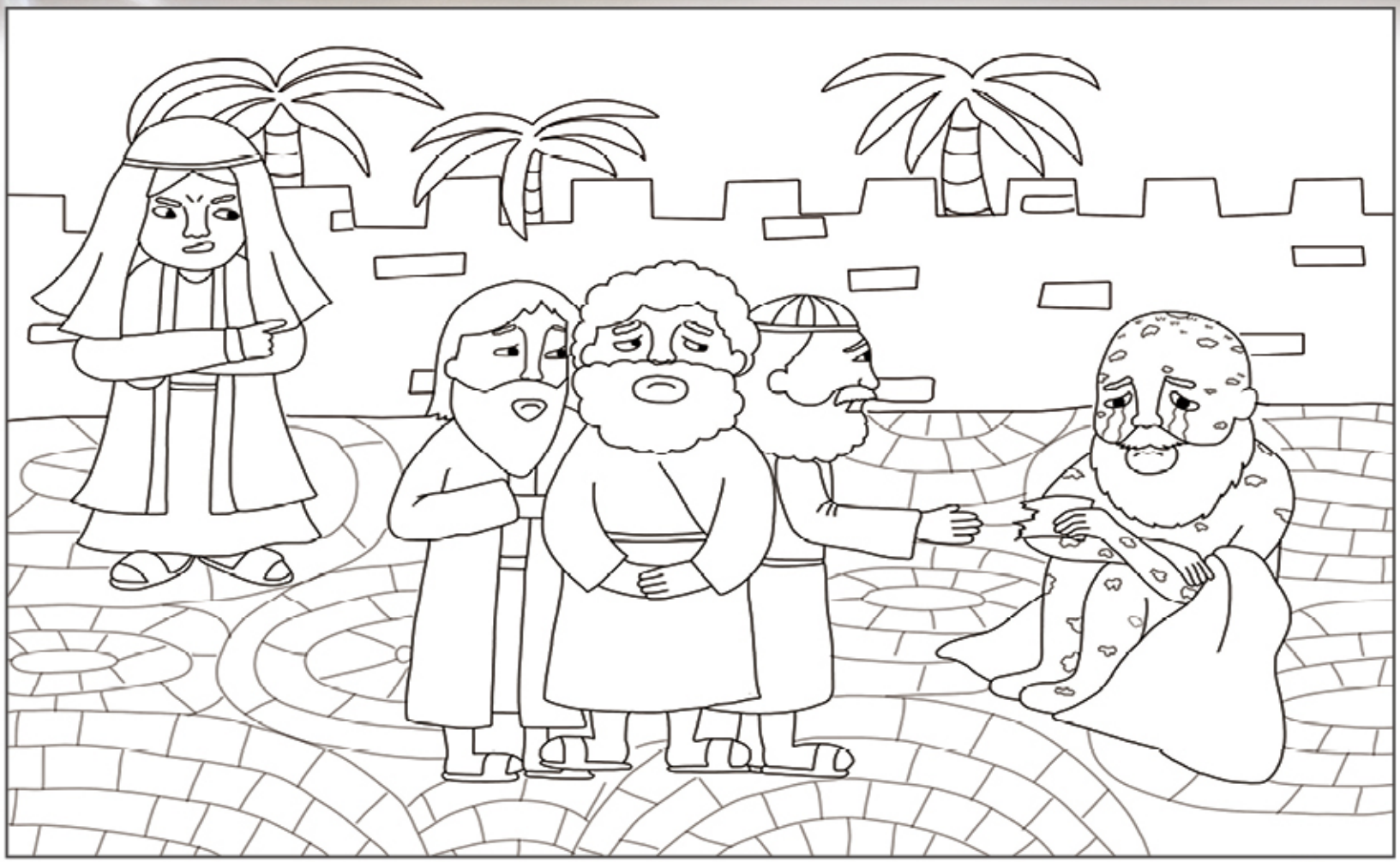
7
아들

3
딸

500
소

3000
낙타

500
암나귀

7000
양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